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요한의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 성경: 요한복음 17장 15-26절

Tag:

15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6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9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20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 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4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5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26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17:15-26)

사도 요한은 여느 자들과는 다른 독특한 면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아주 세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단어들은 어렵지 않으나, 독특한 문법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매우 시적이고, 영적이며, 심오한 진리를 다루고 있다.

사도요한은 12사도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도였다. 그의 형은 야고보로, 일찍 순교를 당하게 된다.

이 두 형제는 ‘세베대의 아들’로 불리었고, 성격이 불같이, ‘우레’라는 별명까지 갖게 되었다. 이들은 베드로와 동료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다.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법 큰 어업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예루살렘에도 집이 있어서 당시 대제사장들의 집안과도 교분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두 형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사역 전반을 헌신적으로 돕는 여인이었으며, 그래서인지 예수님께 두 아들의 출세를 보장해달라는 청원을 넣기도 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자들이었다. 예수님은 이 세 사람과 가장 친근하게 지내셨고, 변화산(다불산?)에도 데려갔다.

요한은 열두 사도중 가장 오래살았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때까지 죽지 않을것이란 소문도 있을 정도였다.

요한은 에베소교회를 섬기다가 밧모라는 섬에 갇히기도 했는데, 그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다.

그는 순교하지 않고, 천수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는 건강하였고,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 불렀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성만찬을 한 후,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도중이든지, 아니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것이다. (어떤 제자들은 졸았을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형식인데, 제자들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은 이 부분을 매우 길게,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다.

두 번째 내용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부활하실 것이며-영화롭게 하소서.**(이 내용은 11장에 자세히 먼저 다루었음.), **그 후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이미 받으셨지만, (승천) 성령을 보내실 것, 그리고 천국을 예비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 15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제자들,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당장 데려가려가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님.

-다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동안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주시기를 기도하심.

-보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거룩한 백성으로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그 자자손손이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세속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다른 계획이 담겨있음.

## 16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예수님;사탄의 수중에 들어가 있지 않으시는 예수님.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한다.

-성도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과 같이 살긴 해도, 거룩한 생활을 하며,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다. 소속, 국적이 다르다.

## 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다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사탄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해진다.

## 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받아 구원받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 19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도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심. 예수님의 거룩함에 물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거룩할 것인가? 식구들을 위해서, 다른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거룩함.

-우리의 거룩함이 곧 전도의 첫걸음.

## 20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심.
- 거룩한 자의 기도는 응답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할 자들이 누구일까? 아직 세속에 있어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

## 21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 하나님의 존재방식.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 물리적 하나(삼쌍둥이), 정신적 하나(학파), 이념적 하나(좌파 우파), 종교 문화적 하나, 정서적 하나-이심전심, 세속적 목적을 위한 하나가 아닌.(깡패도 같이 죄를 짓는것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죽이거나 손목을 잘라 팽시킴)
- 세속적 하나됨이 아닌, 성령안에서 하나됨. 영적인 하나. 영적인 패밀리로서의 하나됨.
-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는 목적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는 것.

## 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우리들에게도 주심.
- 목적은 우리가 하나되게 하려 하심.
-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23절.

## 23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 우리 안에 예수님, 예수님 안에 하나님=우리가 온전케 됨. 예수님

은 중보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세상이 알게 하려 함. 전도함에 목적이 있으심.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

24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심. 우리가 기뻐하도록.(부활을 목격하기를 원하심=>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25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아셨고, 목적 그대로를 이루시고 승천하셨다.

26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17:15-26)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함;정체를 드러내게 함. 카더라가 아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라이센스.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능력.

-요한은(다른 제자들은 이런 묘사 하지 않음.) 그 저녁의 설교를 잘 알아들었고, 잊지 않았으며, 성령께서 다시금 생각나게 하셔서 복음서에 기록하게 됨.

-매우 신비스러운 말씀이며, 간결하고 쉽고, 권위가 넘치는 말씀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동정녀 탄생,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용서, 부활, 천국 등.

-그래서 사랑의 종교, 진리의 종교, 평안의 종교, 위로의 종교, 자비의 종교로 인식시키려는 자들도 많다. 요즘은 특히 마음의 평안과 위

료를 주는 용도로만 사용하려고 함.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보편적인 종교적 가치들 만이 아닌, 진짜 진리를 외치셨는데, 성육신-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심. 자신은 하나님이심,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오심.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 승천하시고 곧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심 등을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심.

-제자들이 후일에 교리를 만든게 아님.

-제자들도 믿기 힘든 것을 예수님이 많이 강조하셨고, 후에 성령이 오셔서 깨우치게 하심.

-요한복음 17장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잊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느헤미야의 충성

성경: 느헤미야 13장 1-14절

Tag:

1 그 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었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2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3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 문화적 혈통적 거룩함.
- 완전히 개종하지 않는 자들을 분리함.
- 요즘처럼 다문화 사회가 아니기 때문임.
- 이슬람은 자기들끼리 모이고, 알라를 위해서라면 속이는 것이 합법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 속아서 결혼하게 됨.
- 진리가 아닌, 자기 맘에 맞는 진리를 그때 그때 선택할 수 있게 됨.
- 이슬람이야말로 여성차별이 종교화, 고착화 되어있음.
- 극단주의는 전체 이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겉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또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자들이 다수임.), 이 또한 잘 알지 못하고 하는 말임.
- 결국 코란을 들이대고 주장하면 과격분자들에게 밀리게 되어 있음.

4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엘리아십과 도비야의 내통. 내부거래.)

- 이재명과 유동규.
- 도비야는 레위인들의 몫을 자기의 것으로 만든 장본인.



-그는 놀랍게도 이방인이면서 성전 골방을 크게해서 차지하고 있었다.

5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6 그 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삼십이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느헤미야가 잠깐 왕궁에 가서 보고하고 다시 돌아오게 됨.

7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아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8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9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10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받으로 도망하였기로

-레위 사람들에게 종교적 직무가 있는데, 모두 중단됨.

-대제사장의 짓. 도비야의 짓.

11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성경적 직무제도 회복

12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이므로

13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

지기로 삼고 맛다나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14 내 하나님이어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13:1-14)

-지금 나라가 이념올범주의, 범카르텔, 정치개판주의, 선거조작 등으로 시끄럽다.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필요하다.

-건달, 깡패들이 대권을 노리고 있다.

-다윗 가문이 사라진 곳에 느헤미야 총독을 세우신 하나님.

-한국은 공산주의자들이 노리는 노른자 나라. 앞으로 몇백년 울귀먹을 수 있는 나라라고 믿고 있음.(해찬노형)

-온갖 술수를 다 써서라도 정권을 차지해야 한다고 베투고 있음.

-이미 그들에게겐 국민의 선택은 없다.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적을 물리치는 가상의 무기일 뿐.

-언론, 방송, 선거조작, 무식한 일부 이념충, 깡패들, 중국 댓글부대, 북한 정권이 그들의 패거리들.

-잡범만 잡고, 이념범은 잡기 어렵게 되어 있는 법.